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5장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산상설교』 상권 제5장, 인쇄 64~76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4

> ❓ **크리스천이면 늘 밝고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죠?**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둘째 복이 세상의 행복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장례식의 슬픔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이다. 그런데 정작 오늘의 교회에서 이 애통이 사라졌다. 그는 그 원인을 잘못된 죄론과 얄팍한 기쁨관에서 찾는다. 이어 주님과 바울의 모습을 근거로, 애통이 자기 죄와 이웃의 죄, 세상의 비참 때문에 우는 것임을 밝힌다. 그런 애통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지금의 위로와 장차 올 영광의 위로를 받게 한다고 말한다. 끝으로 그는 애통하는 사람을 '심각하지만 행복한 사람'으로 그려 보인다.

📜 절별 정리

📜 1. 세상과 정반대인 복 — 영적 애통

로이드 존스는 둘째 복도 첫째 복처럼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확연히 구별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철학은 골치 아픈 일은 잊고 등을 돌리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귀찮은 일이 많은데”라며 어떻게든 행복해지려 한다. 그는 쾌락, 돈, 열광을 좇는 것이 모두 애통에서 도망치려는 몸부림이라고 본다.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은 이 대조를 더 날카롭게 보여 준다. 거기서 주님은 '지금 웃는 자'에게 화를 선언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아는 상태)이 돈의 문제가 아니었듯, 애통도 전적으로 영적인 상태와 자세를 가리킨다.

1. 세상은 애통을 비웃고 피하려 한다
2. 쾌락·돈·열광은 애통에서 도망치는 표현이다
3. 누가복음은 '지금 웃는 자'에게 화를 선언한다
4. 애통은 사별의 슬픔이 아닌 영적 애통이다
5. 심령의 가난처럼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

> **마태복음 5:4**
> 설교 본문. 애통하는 자에게 복과 위로를 약속한다
>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누가복음 6:25**
> 병행 구절. 지금 웃는 세상에 화를 선언해 대조를 드러낸다
>
>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 **마태복음 5:3**
> 첫째 복. 애통이 심령의 가난처럼 영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2. 교회에서 애통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순서

로이드 존스는 세상에 없는 이 애통이 오늘의 교회에서도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교회는 다 옳으니 바깥만 전도하면 된다는 생각을 그는 가장 근시안적인 생각이라 부른다. 그 근거로 모든 부흥운동을 든다. 부흥운동(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새로워지는 일)은 교회가 팔복에 그려진 모습대로 살기 시작할 때 바깥사람들이

애통이 사라진 원인은 셋이다. 첫째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두드러졌던 '거짓 청교도주의'다. 경건의 모양을 꾸며 신앙을 비참하고 매력 없는 것으로 보이게 했고, 그 반동으로 반대 극단이 생겼다. 둘째는 사람을 끌려면 일부러 밝고 명랑한 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셋째이자 궁극적인 원인은 잘못된 죄론과 신약성경과 다른 얄팍한 기쁨관이 겹친 것이다. 이 이중의 잘못 때문에 교회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낳았고, 수많은 전도운동도 숫자를 내세우지만 교회에 깊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부정에서 긍정으로'라는 복음의 순서를 강조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구원의 기쁨 전에 죄의식이 있어야 한다. 죄론 설교는 싫어하면서 기쁨만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죄의식(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자각)은 참된 회심에 반드시 앞서는 요소다.

1. 교회는 다 옳고 전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비극이다
2. 부흥은 교회가 팔복대로 살 때 왔다
3. 거짓 청교도주의와 가장된 쾌활이 모두 문제다
4. 궁극 원인은 잘못된 죄론과 얄팍한 기쁨관이다
5. 기쁨 전에 죄의식, 긍정 전에 부정이 온다

> **마태복음 5:3~12**
> 교회가 팔복의 모습을 회복할 때 세상이 이끌린다는 기준
>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 **마태복음 5:3**
> 성령 충만과 기쁨에 앞서 심령의 가난이 먼저 온다는 순서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긍정적인 것에 앞서 부정적인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 3. 주님의 모습 — 슬픔을 많이 겪은 분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표준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데서 출발한다. 복음서에는 주님이 노하시고 주리고 목마르셨다는 기록이 있지만,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다. 그는 침묵에서 증거를 끌어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도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슬픔을 많이 겪은 자'로 예언했고, 복음서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유대인들이 서른 갓 넘은 주님께 “아직 오십 세도 못 되었는데”라고 말한 장면이 있다. 그는 여기서 주님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다는 해석에 동의한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다. 그러나 친구의 죽음 때문은 아니었다. 곧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도 우셨다. 로이드 존스는 이 모습을 세상과, 그리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른 모습'이라 여기는 가장된 쾌활함과 비교해 보라고 촉구한다.

1.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2. 복음서에 주님이 웃으신 기록은 없다
3. 침묵에서 끌어낸 증거라 조심스럽게 쓴다
4. 나사로 무덤의 눈물은 다른 이유에서였다
5. 주님께 가장된 쾌활함은 없었다

> **로마서 8:29**
>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며 우리가 그 형상을 닮을 표준이다
>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8:56~57

"오십 세도 못 되었는데" — 주님이 나이보다 늙어 보이셨다는 징후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요한복음 11:35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신 주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19:41~44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주님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 4. 바울과 사도들 — 그리스도인의 탄식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이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모든 세대의 성도를 닮아야 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7장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애통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자기 때문에 비탄에 잠겨 울부짖는 사람의 모습이다. 바울은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싸움, 곧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 사이의 싸움을 겪었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다룬다. 로마서 8장에 이르면 바울이 더는 애통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는 로마서 8장 안에서 바울이 여전히 “속으로 탄식” 한다고 반박한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바울은 장막 집에서 짐에 눌려 탄식한다. 목회서신에서는 늙은 남자뿐 아니라 젊은 남자에게도 신중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는 젊은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이려고 늘 미소를 꾸며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1. 로마서 7장의 외침이 애통의 뜻을 보여 준다
2.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절망이다
3.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탄식한다
4. 고린도후서 5장의 장막 집 신음도 같다
5. 젊은이에게도 신중함을 요구한다

> **로마서 7:24**
> 자기 때문에 울부짖는 애통의 전형
>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로마서 7:18**
>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철저한 자기 절망
>
>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 **로마서 7:15**
> 원하는 선은 못 하고 미워하는 악을 하는 싸움
>
>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 **로마서 8:23**
> 8장에서도 성도는 속으로 탄식한다는 반박 근거
>
>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고린도후서 5:2~4

장막 집에서 짐에 눌려 신음하며 하늘 집을 사모한다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2, 2:6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 모두에게 신중함을 가르친다

디도서 2:2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디도서 2: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 5.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 나, 이웃, 세상

로이드 존스는 애통이 심령의 가난에서 반드시 따라 나온다고 정리한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무능을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 성자들은 자기 점검을 권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말했고, 남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만이 아니라 그 뿌리를 묻게 된다. “왜 나는 화를 잘 내고, 시기하고, 나를 억제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체 속의 싸움을 발견하고 미워하며 애통해야 한다.

그는 이것을 '철저한 시금석'이라 부른다. 이런 가르침을 반대하거나 병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며 주님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있음을 선언하는 셈이다. 애통은 자기에게서 멈추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신문을 읽으며 혐오감을 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와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고통 때문에 애통한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과 예루살렘에서 우신 것도 죽음과 불행을 가져온 [illegible]

마음을 찢으려는 실재임을 알기에 애통한다. 반면 세상은 전쟁 중에도 '지금 웃으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한다.

1. 애통은 심령의 가난에서 필연적으로 나온다
2. 하루를 돌아보는 자기 점검을 권한다
3. 행동을 넘어 내 안의 악의 뿌리를 묻는다
4. 이 가르침을 싫어하면 그것이 곧 진단이다
5. 남의 죄와 세상의 비참 때문에도 애통한다

> **마태복음 5:3**
> 애통은 심령의 가난에서 따라 나오는 결과다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로마서 7:23**
> 지체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발견하고 애통한다
>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요한복음 11:35**
> 주님은 죽음을 가져온 죄 때문에 우셨다
>
>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 **누가복음 19:41**
> 자신을 배척하는 예루살렘 때문에 우셨다
>
>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 **누가복음 6:25**
> 세상은 실상을 외면하고 '지금 웃는다'

>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 6. 위로 — 지금의 위로와 복된 소망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말은 역설이다. 로이드 존스는 죄 때문에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이미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성령의 사역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 애통을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 수 없다.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울부짖은 사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인으로 서 계심을 보며 즉시 위로를 받는다.

이 교차는 회심 때만이 아니라 평생 계속된다.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면, 그것이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고, 평화가 돌아온다. 그는 이것을 '즉시 채워질 빈 그릇'에 빗댄다. 위로는 또 하나 있다. 장차 올 영광이라는 복된 소망이다.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다. 50여 년 전에는 세계가 진보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댔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교육도, 국제연맹과 국제연합도 의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눈물이 씻기는 영원한 상태가 있다.

1. 참된 애통은 이미 회개의 시작이다
2. 애통을 모르고는 구주를 알 수 없다
3. 애통과 위로의 교차는 평생 계속된다
4. 세상의 진보·교육·국제기구는 소망이 못 된다
5. 그리스도인에게는 장차 올 영광이 있다

> **로마서 7:24~25**
> 비참의 외침이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로 바뀐다
>
>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한일서 2:1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23~24

탄식 속에서도 몸의 속량을 소망으로 기다린다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18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후서 3:13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4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상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슬픔이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 7. 애통하는 사람의 초상

로이드 존스는 애통하는 사람을 대조로 정의한다. 슬프지만 병적이지 않다. 슬프지만 비참하지 않다. 심각하지만 근엄하지 않다. 신중하지만 퉁명스럽지 않다. 위엄 있지만 냉정하지 않고, 그 위엄 속에 따스함과 끄는 힘이 있다. 그는 비탄도 쾌활함도 꾸미지 않는다.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그 속의 죄와 그 결과를 본다. 바로 그 진리 이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요 심각한 행복이다. 그는 주님을 닮아 신음하고 울지만,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는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과거 교회에 있었다고 말한다. 죄론을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강요하지 않던 시대의 교회다. 심오한 죄론과 차원 높은 기쁨의 교리가 함께 이런 사람을 만든다. 이것을 체험하는 길도 제시한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보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1. 슬프지만 병적이지도 비참하지도 않다
2. 위엄 속에 따스함과 끄는 힘이 있다
3. 비탄도 쾌활함도 꾸미지 않는다
4.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심각한 행복이다
5. 성경 묵상과 기도로 체험한다

> **베드로전서 1:8**
>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 애통하는 자의 기쁨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히브리서 12:2**
>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닮는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8:23

속으로 탄식하면서도 행복한 바울의 모습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디도서 2:2

신중하고 위엄 있되 냉정하지 않은 성숙의 모습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기독교인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요, 그 기쁨은 심각한 행복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애통

자기 죄와 남의 죄, 죄로 망가진 세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영적 상태다.

심령의 가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마음으로, 애통은 여기서 따라 나온다.

죄론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루는 가르침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자각으로, 참된 회심에 앞선다.

개심(회심)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변화다.

거짓 청교도주의
참된 청교도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겉모양만 꾸며 신앙을 비참해 보이게 한 경향이다.

부흥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크게 새롭게 하시는 일로, 그 결과 바깥사람들이 이끌려 온다.

복된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애통은 장례의 슬픔이 아니라 자기 죄와 이웃의 죄, 세상의 비참 때문에 우는 영적 애통이다.
- 오늘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잘못된 죄론과 얄팍한 기쁨관 때문이며, 기쁨 전에 반드시 죄의식이 와야 한다.
- 주님과 바울이 보여 주듯 애통은 그리스도인의 평생 특징이며, 로마서 8장 이후에도 탄식은 계속된다.
- 애통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지금의 위로를 주고, 장차 올 영광이라는 궁극적 위로로 이어진다.

- 애통하는 사람은 심각하지만 병적이지 않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